DOI:10.16979/jmak..75.202202.391

일본의 복지문화 및 노인문화에 관한 고찰

정기룡*
nhk5317l@chonnam.ac.kr

<目次>

1. 머리말
2. 문화와 복지에 관한 담론
2.1 복지문화와 노인문화의 의미
2.2 복지문화 관련 선행연구
3. 복지문화의 구성요소와 현상
3.1 복지문화의 구성요소
3.2 복지문화의 형성과 실천
4. 인구고령화와 노인문화
4.1 인구고령화의 환경변화
4.2 노인문화의 발아와 진전
4.3 노인문화의 형성과 전망
5. 맺음말

主題語: 고령사회(aged society), 고령자(senior citizen), 노인문화(Elderly culture), 복지문화(welfare culture), 사회복지(social welfare)

1. 머리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혜택을 종합하여 우리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고 한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책을 포괄하는데, 기본적 인권(특히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생활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생활보장, 심신장애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원조하는 공공서비스를 협의의 사회복지,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생활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광의의 사회복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의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와 관련된 조직체계의 개념이라고 하겠는데, 일본에서는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신체장애자복지법(身體障害者福祉法),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 지적장애자복지법(知的障害者福祉法), 모자·부자 및 과부복지법(母子·父子及び寡婦福祉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어 시행하고 있다[1].

*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일본의 사회복지는 일본헌법 제25조(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복지현장에서의 문화적인 환경변화가 진전되었고 베이비붐세대(団塊の世代)[2]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복지문화가 형성·진전되었다. 특히 개호보험제도 이전의 조치제도 하에서는 요개호자(要介護者)에 대한 지원과 원조에 있어서 서비스이용에 관한 공평성의 결여와 심리적 거부감 등의 문제가 일부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에는 간병수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었다[3].

이러한 최근의 사회복지환경 변화와 더불어 생활전반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화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복지현장과 복지관련 문헌을 비롯하여 일본정부와 지자체, 복지기관, 학계, 언론 등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담아 최근 복지문화[4]라는 용어를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미와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형성되어온 상부상조의 의미부여 그리고 문화적인 일상생활의 진전을 반영하여 이른바 복지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의 의미[5]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담고

있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국면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모자·부자 및 과부복지법, 나아가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장애자자립지원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社会保障 (2020.2.20)

2) 일본의 베이비붐세대는 1947년~1949년에 걸쳐 무려 260만 명 이상 출생하여 문화적인 측면과 사상적 측면에서 일정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전후세대로서 2022년 현재, 73~75세의 연령에 이르러 일본의 의료제도상 전기고령자(65~74세)에서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세대이다.

3) 정기룡(2021)「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변용에 관한 고찰」『일본근대학연구』72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344-345. 참조. 20세기말까지 노인복지법에 입각한 공적개호가 조치제도였다면, 인구고령화에 기인한 다원적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구축되는 개호보험제도(介護保険制度)는 개호선택의 전환기가 되었다. 일본의 장기요양제도는 행정조치에서 개호서비스 선택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변화를 통해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제도개정을 거치면서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환경이 개선되었다.

4) 増子勝義(2006)『福祉文化の創造』北樹出版, pp.9-16. 참조. 복지문화란 지역사회 활동에 의해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 주민이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활동에 참가하여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② 복지이념에 입각해 사람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③ 재물, 경쟁, 과학기술 등에 편협하게 함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공유하며 ④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유지를 중시하는 건강문화의 실현에 나서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5) 佐藤健二·吉見俊哉編(2007)『文化の社会学』有斐閣アルマ, pp.4-6. 사토켄지(佐藤健二)는, 문화에 관한 정의가 어려운 것에 대해, 내용의 다양성과 더불어 논리의 모순을 문제시하며 정의를 내리는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문화를 포함하는 어휘에는 다문화주의, 이문화교육, 기업문화, 문화유산, 복지문화, 생활문화, 문화행정, 문화재보호, 문화훈장, 예술문화진흥기금, 문화활동 등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용어에 관한 내용파악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만, 각 어휘가 의미하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실존사물과 메커니즘 이외의 잔여영역을 문화로 파악하는 암묵적인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있는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복지문화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해 일정한 논의에 입각한 개념정립이 필요할 것이다[6]. 그와 더불어 복지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고령자의 생활양식 변화에 입각한 고령자의 생활상을 토대로 노인문화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고자 한다.

문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민속학과 노년사회학을 비롯하여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문화진화론, 문화전파론, 문화영역론, 문화기능론, 문화구조론 등 여러 영역에서 문화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영역의 배경과 시각, 지역 등에 따라 분석방법과 쟁점이 확산될 수도 있으며 고령자 관련 사회현상을 논리화시키는 과정은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찰에 있어서는, 노인문화에 관한 필자의 선행연구[7]와 더불어 일본의 복지현장에서 발아한 복지문화 담론에 범위를 한정하여 문화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노인복지는 고령자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포괄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고령자 또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보람 및 삶의 의의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복지현장에서 생성되어 발전하고 있는 복지문화와 더불어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행동양식의 변화에 입각한 고령자의 노인문화[8]형성에 관하여 고령자대책 일환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6) 개념(槪念:concept)이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종합한 보편적인 관념을 말한다. 개념은 고유한 의미를 지니며 자의적으로 의미를 바면 의사소통과 전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사물은 변화하므로 어떤 개념이라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개념의 의미도 변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징을 인식하는 용어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정세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든가 혹은 막연하게 인식되어 온 어떤 현상이 새로 중요시되어 조명을 받거나 이전에 사용했던 용어로는 설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새로운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여 개념을 설정하게 된다.

7) 정기룡(2003)「고령사회 일본의 노인문화」『日語日文学研究』43집, 韓國日語日文学会, pp.299-301. 정기룡(2018)『노인문화창조-베이비붐세대의 한·일 비교분석』제이앤씨, pp.5-386. 외 참고문헌 참조. 일반적으로 문화란, 선진풍의 요소 혹은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을 비롯하여 교양과 지식, 예술풍의 요소(문화재·문화국가) 나아가 인류의 가치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킨다. 이렇듯 문화는 인류의 사유(思惟)와 행동양식(생활방식)에 기초하여 사회로부터 습득하여 전달하며 진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문제 관련 제도와 현상분석 나아가 고령자의 생활행태 등을 포괄하여 노인문화 개념의 구축 및 노인문화창조를 시도하였다.

8) 노인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교양활동과 건전한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따위를 통하여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인들 간의 문화를 말한다. 즉 사회일반의 교양활동과 건전한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따위를 통하여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고령층에서 형성되는 문화를 가리킨다.

2. 문화와 복지에 관한 담론

2.1 복지문화와 노인문화의 의미

문화는 인간의 현실적이며 상상적인 생활경험이 상징화된 형태로써 이러한 생활경험은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대(對) 인간, 대(對) 자연, 대(對) 관념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상징화된 유무형의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예술 및 각종 제도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문화란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되어 공유하고 전달되는 행동양식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나아가 문화는 수준 높은 교양이라든지 깊이 있는 지식, 세련된 아름다움과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 등과 관련된 일체의 생활양식 그리고 현대적 편리성을 갖춘 생활양식까지도 의미하는 등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복지의 정의는,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 및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9]. 실제 일본에서는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복지의 추진과 더불어 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향상과 관련하여 고령자의 문화적 복지실천의 차원에서 복지의 문화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실생활에서 복지와 문화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합한 형태의 복지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복지의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에서 거부감 없이 복지실천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와 이미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복지문화라는 용어는, 그 이전부터 사용해온

9) 中村磐男·助川征雄·牛津信忠·池弘子·山口圭 編(2010)『標準社会福祉用語事典』秀和システム, p.197.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협의의 의미에 대해 기본 인권보장(특히 생존권)의 관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보장과 더불어 심신장애로 인해 지원과 간병수발이 필요한 자에 대한 원조를 공적서비스의 의미로 파악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광의의 사회복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에서는, 복지란 '행복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말이며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행복과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려는 이념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문화에 관해 해설되어 있는 고분도(弘文堂)의 복지사회사전(福祉社会事典)에 따르면, 복지문화의 생성배경에는 종래의 복지가 구빈에 기인한 일상생활 욕구충족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현대사회의 복지는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과제로 인식되어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지향하려는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문화적인 생활 욕구에 기인한 복지수요의 확대와 서비스 제공의 형태가 복지문화로 형성되며 인식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와 ‘복지사회’라는 용어의 범위로는 포괄할 수 없는 복지현장에서의 문화적 현상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복지문화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한편, 노인문화란 고령자 층의 교양활동과 건전한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하여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인들 간의 문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상생활을 통해 교양활동을 비롯하여 건전한 취미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참여를 통해 보람된 생활을 지향하려는 고령층의 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활동은 노인시설에서 문화적인 레크리에이션의 도입과 이용자의 취미활동, 지역특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문화적인 삶이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속한 환경이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적·물적 자원이 원활히 공급되며 고령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일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는 이미 공공제도와 민간차원에서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문화는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입각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복지시설과 고령자단체를 비롯하여 매스미디어에서도 빈번하게 노인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고령자의 문화적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홍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문화와 노인문화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용어의 표현범위와 사용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초래되는 오해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가 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복지문화와 노인문화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정립과 그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2 복지문화 관련 선행연구

먼저, 일본의 복지문화 관련 학회지인『복지문화연구(福祉文化研究[10])』에서는 복지문화론

10)『福祉文化研究』는 일본 복지문화학회의 학회지로서 복지문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서 생성된 방법론과 실천활동에 관한 학술지이다. 그동안의 학술연구의 과정에 있어서는 ‘복지의 문화화‘와 ‘문화의 복지

의 담론을 통해 복지관점에서 본 문화영역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지역복지, 여가를 대상으로 한 복지실천에 관한 연구를 주로 담고 있다. 이렇듯 복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며 복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문화를 육성하고 문화를 창조해나가자는 취지로 1989년에 설립된 '일본복지문화학회(日本福祉文化学会)'에서 복지문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1].

이어서 학회 이외에서 복지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정부 관련 사회복지구조개혁의 중간보고[12]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자조, 협조, 공조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각각의 개성 있는 복지문화를 창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복지문화의 창조라는 표현은 신선하지만, 복지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복지문화의 내용보다 표어형태의 주제와 복지제도의 구호로서 사용된 바 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 자문기관인 「사회적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본자세에 관한 검토회(2000.12.8)」의 보고서[13]에서도 복지문화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가 생활과 관련된 이상 생활거점인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관민협조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창조를 제언한 것이다. 그렇지만 보고서의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지문화인지에 대한 상세내용에 관한 설명 대신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방식에 입각한 복지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머물고 있다.

그 외에도 복지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복지문화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에 앞서 지자체의 캠페인이라든지 고령자단체의 활동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화', '지역의 복지화' 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복지실천과 경험의 공유, 문화생활 향상 등 복지현장에서의 실천을 이론화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어왔다. http://fukushibunka.hippy.jp/(2021.11.2.)

11) 일본복지문화학회(日本福祉文化学会):1989년에 설립된 본 학회에서는 일본 복지현장의 과정에서 학습하여 이론화하고, 이를 다시 현장실천으로 활용하려는 학회활동을 통해 문화로서의 복지를 지향하여, 문화와 복지를 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간다는 이념 하에서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다. http://fukushibunka.hippy.jp/index.html (2021.10.20.)

12) 사회복지구조개혁의 이념에서 다음처럼 복지문화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다. (7)福祉の文化の創造:社会福祉に対する住民の積極的かつ主体的な参加を通じて、福祉に対する関心と理解を深めることにより、自助、共助、公助があいまって、地域に根ざしたそれぞれに個性ある福祉の文化を創造する。http://www.mhlw.go.jp/index.html (2021.4.21.) 참조.

13) 일본성청(日本省庁) 자문기관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지문화에 관한 정의가 올바른지 어떤지에 관한 적절성 여부보다는 복지문화의 필요성을 내용에 담은 점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차원의 보고서에 복지문화라는 용어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福祉文化の創造:社会福祉が人々の生活にかかわ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人々の生活の拠点である地域社会において、いわゆる'官'と'民'が共働してその推進を図る必要があり、新しい'公'の創造を提言した所以でもある。また、社会福祉が人々の生活にかかわるうえで、その人の尊厳を守り、生き方を尊重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これらのことは、狭い意味での社会福祉の課題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いことから、このようなことに立脚した福祉文化が創造され、わが国の中に定着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ろう).

일본에서 복지문화에 관한 대표적 선행연구자인 이치방가세 야스코(一番ヶ瀬康子:1997)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문화화'와 더불어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를 계기로 '문화의 복지화'가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두 가지 개념의 통합된 의미를 담아 '복지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4].

분명한 것은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복지현장에서도 문화의 개념을 사용하며 복지의 문화화와 문화의 복지화의 복합적인 형태를 이른바 '복지문화'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복지문화의 궁극적 목표가 자기실현이라는 一番ヶ瀬康子의 담론[15]을 요약하면, 이러한 시각은 결국 복지분야의 문화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문화의 복지화'에 대해서는, 문화가 어떤 특권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과 사회복지 실천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복지문화가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보편적 복지의 향상과정 및 성과로서 대중이 만들어낸 문화의 개념정립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복지문화에 관한 논의에서 이와마 후미오(岩間文雄1999)는, 복지문화개념을 규정하는 문제를 제시하며 명확한 정의 이전에 복지문화가 이미 폭넓게 사용되는 상황이므로 복지문화가 종래의 사회복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화실천이 사회복지원조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 충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복지문화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주로 제도중심)에서는 복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비판과 또 다른 선책지의 사회적 요청에 의해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에 침투시키는 것이 복지문화의 사명이라고 주장하였다[16].

한편, 사카노 미쓰구(阪野貢:2006)는, 문화를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나타나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복지문화란 일상을 영위하는 인간의 모든 생활과 가치의 구현 나아가 그 과정을 복지와 관련지어 사고하는 방향성에 입각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지활동

14) 一番ヶ瀬康子·桜井里二·河畠修·多田千尋·萩原清子(1997) 「日本福祉文化学会は何をめざすのか一変革の時代の福祉を問う」『福祉文化研究』Vol.6. 日本福祉文化学会, pp.6-8. 여기에서 이치방가세 야스코(一番ヶ瀬康子)는 진정한 복지와 문화가 목표로 하는 이른바 복지문화라고 하는 신조어는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와 문화 모두 발전·지향적인 목표를 종합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15) 一番ヶ瀬康子(1927.1.5-2012.9.5)는 '복지문화'는 복지와 문화가 복합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생활욕구 충족에 있어서 문화성을 포함해 인식하는 개념이며 복지 그 자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자 자기실현이라고 논하고 있다. 즉 복지문화란, 종래의 제도중심의 사회복지 구조에서 나아가 비공식이고 봉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복지와 문화를 융합한 합성어이다. 사회복지 제도를 비롯해 복지전반에 관련된 문화적인 노력으로 비공식적인 복지를 사회복지에 구현하기 위한 문화적 생활욕구의 충족을 위한 복지사회 전반의 대처 방안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6) 岩間文雄(2010) 「福祉文化研究の今日的課題」『関西福祉大学社会福祉学部 研究紀要』No.13, 関西福祉大学社会福祉学部, pp.177-180. 참조.

의 의미가 개인존중에 입각한 인간관과 복지관에 의해 모든 구성원의 자립과 공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복지문화라고 주장하였다[17]. 따라서 복지문화란, 각 개인의 차이가 존중되는 공생의 문화이며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 안심, 평화, 풍요를 지향하는 생활향상과 배려의 문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의 협조활동의 문화라고 본 것이다.

나아가 복지문화라는 용어는, 기존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에서 일반화·보편화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문화가 활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나가야마 마코토(永山誠:2004)는 새로운 복지개념의 윤곽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사회복지의 내용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복지문화가 표명되었다고 보았다[18]. 그와 더불어 복지문화가 2006년6월에 공시된 일본의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해설 등에서 복지문화가 지역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적 용어로 사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19].

이러한 주장에서는, 복지문화가 사회의 가치체계를 문화로 인식하는 시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와 상호 지지활동을 포괄하는 담론을 담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종래의 사회복지에 결여되어 있거나 사회복지로 전부 대응할 수 없었던 비공식적인 부분 그리고 기존의 원조와 실천 및 복지현장에서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까지 포괄하여 복지문화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여 복지문화의 개념을 재 요약하면, '복지문화란,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화된 복지지원을 비롯하여 복지현장에서의 복지실천이 안전과 안심을 위한 상호유대 나아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생의 문화적 개념의 총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3. 복지문화의 구성요소와 현상

3.1 복지문화의 구성요소

문화의 시점에서 복지를 볼 것인가? 복지의 입장에서 문화를 볼 것인가? 복지문화를 정립함

17) 阪野貢(2006)「福祉文化と福祉教育」『社会福祉セミナー2006』, pp.1-3, pp.65-69. 등 참조.
18) 永山誠(2004)「福祉文化を探求する視点」『福祉文化研究』Vol.13, pp.2-3. 참조.
19) 永山誠(2007)「地域社会と福祉文化」『福祉文化研究』Vol.16, pp.2-4. 지역사회과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대처를 복지문화의 창조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문화는 개인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과 복지관에 입각하며 구성원의 자립과 복지의 그리고 사회참여에 기초한 공생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에 있어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점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복지현장에서의 문화는 결국 '복지의 문화화'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마스코 카츠요시(增子勝義:2006)는 '복지문화의 창조'에 대해, 복지를 개척하고 문화를 만든다는 시각에서 복지의 문화화를 통해 사회복지의 양(量)과 질(質) 두 측면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20].

문화의 복지화는 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복지이념이 배양한 가치관을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먼저, 문화적인 사고와 양식자원을 어떻게 사회복지 분야에 도입하여 사회복지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에 내재하는 문화적 측면의 행동양식 및 가치체계를 여타 문화와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미부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남게 된다.

한편, 다카타 신지(高田眞治:2007)는, 복지문화란 복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서 문화를 형성하고 더욱 문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의 성과를 말하며, '복지의 문화화'와 '문화의 복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와 더불어 정책과제인 「사회복지 구조개혁」의 주요항목에서도 복지문화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21].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구축, 사회복지의 문화화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추진대책 등에서 복지문화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종합하면,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로 복지와 문화(혹은 사회) 간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복지문화란 사회에 있어 문화와 복지실천 등에서 발신된 새로운 문화가 융합하여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산물일 것이다. 따라서 복지수요 확대의 대응책으로 공급측면의 보완을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복지문화의 구성요소인 복지와 문화의 합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복지문화의 형성은 초고령사회에서의 필연적 출현이었을지 모른다.

3.2 복지문화의 형성과 실천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문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예외 없이 '복지의 문화화'와 '문화의 복지화' 두 요소가 상당히 의식되고 있지만, 그러한 논쟁과는 별도로 복지문화라는 용어를

20) 增子勝義(2006)『福祉文化の創造』北樹出版., pp.9-16. 참조.
21) 高田眞治(2007)「社会福祉の政策課題」『エンサイクロペディア社会福祉学』中央法規出版, pp.12-15. 참조.

보다 폭넓게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일본사회에서는 복지의 문화화와 문화의 복지화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미 '복지문화'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와 문화도 시대와 환경에 의해 변화한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향후에는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복지국가에서 제도화된 대책과 재정범위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면 재정부담이 적은 상부상조의 문화로 보완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상부상조의 문화는 현재의 복지문화에 가까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복지문화의 형성은 종래의 복지제도만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공동체의 봉사활동과 상부상조 및 협력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역사회에서는 복수의 집단이 각각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문화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면 각 집단은 지연공동체의 형태이지만 기능공동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과 복지관, 복지관련 협회와 시민단체 등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려는 단체와 시설 및 협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의 복수의 단체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를 융합하여 조직화한다면 일정형태의 문화가 발아하게 된다. 나아가 사회복지 실천이 지향하는 지역사회에서 드러나는 현상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형태 등에서 지역사회의 문화가 복지문화의 형태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22]. 이와 관련하여 지역복지에 관한 담론 또한 일본의 사회복지가 당면한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의식에 입각해 논의되며 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의 개념은 현실적인 지역사회의 단위인 시정촌(市·町·村)의 영역 혹은 자치회의 영역처럼 일정구획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지역사회에 속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였지만, 최근에는 사회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정비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개호와 육아 등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케어, 육아 및 사회적

22) 일정형태의 공통된 문화란, 지역사회에서 구축된 문화를 공유하는 예로서 육아에 임하고 있는 모친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육정보 및 육아 관련 관심사 공유랄지,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일지라도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겪는 경험담 및 유용한 정보, 나아가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공통의식 및 행동양식 나아가 가치관 등을 들 수 있겠다. 그 활동내용을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각 단체가 갖는 영역에서의 각각의 문화와 지향하는 가치를 종합하여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복지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립 등의 복지실천과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전의 지역사회커뮤니티가 복지커뮤니티 개념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입각한 복지문화의 실천은, 그동안의 복지현장의 효율적인 제도운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비공식적인 대응인 상부상조의 정신과 일상생활의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변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0년의 개호보험제도 신설과 그후의 개정과정을 거쳐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자의 생활전체에 복지문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개호보험 개정과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와 더불어 지역포괄센터[23]의 운영 등을 비롯하여 고령자의 사회참가에서 드러나는 고령자의 공통된 생활양식과 사회활동 유형은, 이미 일정한 형태의 문화를 구축하는 노인문화 발아단계에 진입하여 지금도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풍토를 만드는 것은 제도나 법체계의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의식에 기인한다. 또한 제도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복지현장·행정현장·연구현장 등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확산시키는 것도 복지문화의 실천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복지현장에서의 불충분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제기는 복지서비스 향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복지문화를 지향하려는 인간존중의 가치체계를 발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한경변화에 입각하여 일정형태의 고령자 생활상이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4. 인구고령화와 노인문화

4.1 인구고령화의 환경변화

일본인의 평균수명에 기인한 '인생100년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65세 법정정년 이후의 약 30년간은, 되돌아보면 인간이 태어난 시점에서 성인에 이르는 시간보다 긴 시간이다. 즉, 노후의 삶에서 30여년은 여생의 보람된 시간을 모색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이다.

23) 정기룡(2021)「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변용에 관한 고찰」『일본근대학연구』제72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346. 간호, 의료, 보건복지 측면에서 고령자를 지원하는 종합상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각 시·정·촌이 설치하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민간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역에 약5,000여 시설을 구축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후반기는 과연 고령자들만의 관심사인가? 지속되는 노화, 그에 수반된 질환 나아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보람될 것이며 어떻게 고령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의문은 결코 고령자들만의 해결과제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면 누구라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늙어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공경하는 의미에서 경로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24]. 인생과정의 통과의례로 파악해보면, 장수의 관문으로 환갑(還甲:60세), 고희(古稀:70세), 희수(喜壽:77세), 산수(傘壽:80세), 미수(米壽:88세), 졸수(卒壽:90세), 백수(白壽:99세) 등으로 구분하며 장수 축하의 날이 이어진다. 그리고 피안(彼岸), 오봉(お盆), 기일(法事) 등 조상을 공양하는 문화 등도 일본인의 생활에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고령자의 행동양식은 이전시대의 문화를 다음세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각 연령대마다 이어온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무형문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인생의 통과의례를 통해 노후의 생활에서도 고령자의 가치로 받아들여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늙는 것에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일본문화 속에서도 늙는 것은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일본인은 늙음에 대해 그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쌓여가는 기억과 경험을 삶의 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이가 늙어가면서 단순히 쇠퇴하는 육체와 정신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축적된 기억 속의 가치를 찾아 그것을 문화로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물론 고령기에 이르면 누구라도 신체적인 쇠약과 물리적 수명이 다하는 시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역시 고령자의 종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노화현상은 자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생활양식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노후의 문화로 형성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고령자 라이프스타일[25]은, 선조들의 생활양식을 상당부분 계승해왔고, 현재 초 고령사회

24) 일본에서는 경로의 날(敬老の日)이 법정공휴일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사회에 공헌해 온 고령자를 경애하고 장수를 기리는 취지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02년까지는 9월15일이었으나 2003년부터 9월3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1990년UN 총회에서 10월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제정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1997년 '노인복지법'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더불어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그리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로서 전통풍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켜 온 고령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문제를 되돌아보는 의미를 부여하여 정한 것이다.

25) 정기룡(2011)「일본의 고령자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일본연구』제4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9. 라이프스타일(ライフスタイル, lifestyle)은 생활양식·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인생관가치관·습관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삶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라이프스타일이란 사람이

의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현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에 향후 고령자 특유의 행동양식을 후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자는 지난 현역시대의 경험과 은퇴 이후의 연장선상의 일상생활과 사회참가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과도 관련지어 일정형태의 생활양식을 구축하는 과정의 중심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령자의 생활행태는 이른바 노인문화로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4.2 노인문화의 발아와 진전

일본에서의 노인문화[26]는, 특별히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전부터 유교 등의 영향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과 노인 스스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처세술 같은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전부터 노인을 칭하는 옹(翁:おきな)이라는 말은 노인을 존경하는 표현이었다. 그 외에 장로(長老)는 학식이 풍부한 연장자 혹은 노인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으며 장(長:おさ)이란 많은 사람에 앞장서서 통솔하는 일족의 우두머리 혹은 촌장 등의 의미로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른바 늙은 사람의 호칭인 옹이라는 표현은 일본문화에서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사용해왔던 것이다.

또한 아카세가와 겐페이(赤瀬川原平:1997)가 노인의 힘[27]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늙어가는 현상이란 인간의 생활과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삶의 경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사는 방식으로서 사회관계, 소비, 엔터테인먼트, 패션 등을 비롯하여 개인의 특성, 가치, 또는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나아가 사람들의 생활양식·행동양식·사고방식과 같은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차이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등 가치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26) 정기룡(2003)「고령사회 일본의 노인문화」『일어일문학연구』제43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99-301. 고령자의 일상생활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생활전반에 걸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정비와 노인의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을 노인문화로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노인문화(老人文化)의 사전적 의미는, 교양활동과 건전한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하여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고령자들의 문화라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老人文化会議, 高齢者文化の社会, 高齢社会と文化芸術, 老人文化遺産, 老人文化祭, お年寄り比較文化, 老人文化作品展示会, 老人クラブ文化祭, 老人の文化, 高齢者文化の社会, 高齢社会と文化芸術, 高齢者と福祉文化, 高齢者福祉生活協同組合, 生活文化:高齢者福祉事業 등 단체명과 행사를 비롯하여 고령자관련사업과 축제 등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노인문화센터, 노인문화예술교육, 노인문화축제, 노인문화창조, 국제노인문화복지센터, 고령자문화 등을 비롯하여 노인복지 관련기관의 명칭 및 고령자관련행사 등에서 노인문화라는 용어를 위화감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노인력(老人力)에 관한 의미 부여는, 赤瀬川原平(1988.2)「老人力講座-爆笑対談'男の分別学'拡大篇」『オール讀物』文藝春秋, p.216. 赤瀬川原平(1999)『老人力』筑摩書房. 등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이른바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노화현상을 쇠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노인에게 힘이 붙었다는 긍정적 시각의 역발상으로 접근한다. 보통 나이가 들었다거나 노망했다는 표현보다는 '저 사람도 제법 노인의 힘이 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는 대신 적극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즉, 오래된 것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골동품 혹은 빈티지의 개념으로 여기자는 의미라고 하겠다.

서 그에 수반되는 현상에서 가치의 발견으로 삶을 재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물리적인 가령(加齡)의 증상을 되돌리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고령자 자신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모두 인생과정의 변화에 대해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시각에 기인한다.

한편, 일본에서 문화적 측면의 복지활동의 실천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곳은 앞의 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시설이었다. 복지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을 문화적 견지에서 보면, 1960년대 초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문화라기보다 최저생활을 위한 의식주의 해결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법(1963)」이 시행되어 2~30년 동안 노인시설의 체계가 갖추어졌지만, 사회복지의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양호노인홈」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용자 처우에 관한 비문화적 요소의 탈피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다[28].

실제 개호보험제도 이전의 노인복지시설의 주거환경은 대부분 4~8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더불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수치심으로 인해 문화적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의 개호보험제도 시행이후 1인실과 2인실로 시설이 정비되며 고령자의 프라이버시가 일정부분 해결되었고, 고령자를 캐어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여유로운 문화적 공간도 제공되었다. 따라서 고령자는 물론이고 시설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관계자들이 공동생활은 공동생활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문화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복지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9].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복지환경의 개선과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환경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인문화의 발아(發芽)와 진전은 늦추어졌을 것이며 고령자들의 존재감도 희박해져 고령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고령자의 생활환경은 현역세대에게 있어서도 향후 노후의 미래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노인문화는 급조하기보다는 정신적인 면과 체력적인 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쇠약해져가는 체력을 보강하며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고(思考)하려는 인식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

28) 정기룡(2003) 앞의 논문, pp.306-307. 1990년대에 이르러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이 실시됨에 따라 노인홈을 둘러싼 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였고 20C말까지 29만 병상을 목표로 골드플랜에 입각하여 노인시설이 늘어났는데, 거품경제 붕괴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확대의 성과가 노인복지부문에서 이루어졌다.

29) 河畠修(2001) 「高齢世代の動向と福祉文化」『高齢者と福祉文化』明石書店, pp.30-36.참조

4.3 노인문화의 형성과 전망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었던 일본에서는,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여가활동 확대와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의 계승까지 포함하는 노인복지의 향상 및 고령자의 생활과 관련되어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 노인문화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여가이용, 복지지원, 전통문화 등의 주제와 관련된 강연회 및 세미나의 개최, ②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연수와 건강운동회의 개최, ③ 고령자의 상담과 생활지원, ④ 건강 및 의료서비스체계의 구축 등의 활동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과 진전이 이어졌다[30]. 그 외에도 의료·복지분야의 기술이 점차 진전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의 의료기기와 간병·수발기기의 지원 및 재택케어·원격의료시스템 등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31].

이렇듯 고령자의 생활양식이 사회의 환경변화로 인해 생활형문화와 시스템형문화의 상호보완적 환경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형성되고 여가활용을 비롯한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상의 축적을 통해 고령사회에 걸맞은 생활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시스템과 여러 문화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복지문화와 여가활동이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고령층의 공통된 생활양식이 형성되었고,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자를 둘러싼 저변문화와 노인문화와의 관계는 <그림1>과 같은 양상을 띠며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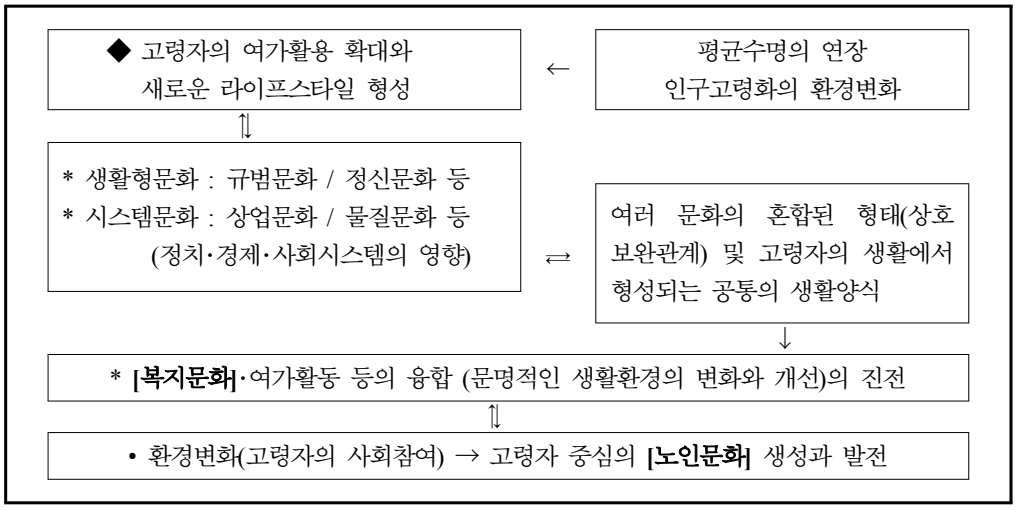
고령자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고령자 스스로 사회참여 의식이 고취되어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나서는 등 일상생활에서 고령자들의 공통 생활양식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복지와 문화, 여가활용이 융합하는 한편, 생활환경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면,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참여에 따른 보람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32].

---

30) 정기룡(2018)『노인문화창조-베이비붐세대의 한·일 비교분석』제이앤씨, pp.166-172. 동 pp.217-227. 동 pp.258-264. 동 pp.292-308. 등 참조. 고령자의 생활보장, 노인문화, 여가, 고령자학습 등에 관하여 정부의 지원 및 지자체와 연구기관, 교육기관 나아가 고령자단체의 자생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1) 일본에서는 앞으로 고령자의 간병·수발분야에서 로봇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제 일본인구 중 약25% 즉, 인구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데,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가 한동안 지속되면서 고령화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간호사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요양과 간병수발 관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보완수단으로서 케어로봇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정기룡(2021)「일본 고령자의 생애생활설계에 관한 고찰」『일어일문학』제8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자료 : 정기룡(2018)『노인문화창조』제이앤씨, p.225. 그림 <9-1>을 참고하여 수정 작성.

<그림1> 고령자를 둘러싼 저변문화와 노인문화와의 관계도

실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형태의 '활동적인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형태의 신생 비즈니스로서 고령자의 생활양식과 생활행태를 고려하여 고령자가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33]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단순히 취미, 어학 등 지식전달에 치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테마지향 학습을 비롯하여 인간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화하며 고령자의 학습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령자의 학습활동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다[34].

---

pp.338-341. 고령기를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여가활동과 사회참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기회 활용 등이 유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日本内閣府政策統括官編(2006, 2011, 2016, 2021)「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의 고령자 사회참가활동의 결과를 보면, 지역행사 및 마을가꾸기활동, 주변공원미화활동, 취미·기능을 활용한 지원활동, 지역사회 방범, 교통안전활동, 취미/스포츠/학습지도활동 등으로 사회참여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일본에서는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전문컨설팅이 시도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여행과 휴식 그리고 지적욕구에 관한 상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주택소개, 정원꾸미기, 농업기술 전수 및 부대상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담고 있다.

34) 정기룡(2016)「여가활동으로서의 일본 고령자학습에 관한 고찰」『일어일문학』제6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22-330. 생애학습진흥법(1990)과 교육기본법(2006)에 근거한 고령자의 생애학습과 관련하여 노인교육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후의 보람을 위한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성인교육과 노인교육연구를 1) 성인발달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2) 노인학습의 성립조건에 관한 연구, 3) 성인교육 연구, 4) 지역 평생학습조사 분석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고령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입각한 사회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건강관리, 학습취미, 여가활용, 스포츠시설, 재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실버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시장은 IT관련 정보의 활용이 요구되는데 베이비붐세대는 이전의 고령자와는 달리 상당부분 사무자동화를 경험하였고,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유연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령자를 둘러싼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위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지원은 이전보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가가 정착된다면, 고령자의 노인문화는 보다 활력 있는 고령사회구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 맺음말

최근 복지현장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등에서도 복지문화와 노인문화라는 용어가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의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복지현장에서 진전되고 있는 복지문화의 형성과 고령자의 활동상을 노인문화로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먼저, '복지의 문화화' 혹은 '문화의 복지화' 어느 쪽의 요소에 역점을 두고 복지문화를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관해서는, 초고령사회가 진전되는 가운데 복지문화가 복지현장에서 복합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복지의 추진에 있어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활용하여 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단체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를 조직화하면 일정형태의 문화와 복지가 융합되어 복지문화·노인문화의 형태로 진전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왜냐하면 지역복지시설의 문화적 개선을 통해 종래의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는 계기가 되어 자생적인 노인문화를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복지의 가치가 사회에 침투하는 측면과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로 융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존중이라고 하는 복지이념에 입각해 새로운 행동양식과 문화적인 삶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결국 복지문화는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현장의 제도운영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문화적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진전시켰던 것이라고 한다면, 노인문화는 복지제도와 복지환경 등의 요인이 작용을 하지만, 고령자 스스로 사회참가에 나서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고령자의 자발적인 생활행태에서 발아하여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복지문화는 빈부격차 확대, 고용환경의 악화, 사회보장 재원확보 등의 사회적과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복지자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동안 제도개혁에 따라 노인복지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구축된 복지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복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와 더불어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고령자의 와상상태와 요양기간을 줄이면서 재원부족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는 노인문화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진전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그리고 일본보다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할 것 같으면, 지역사회에서의 복지문화 형성과 긍정적인 노인문화의 진전은 매우 바람직한 문화현상이자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형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자원의 활용과 복지현장에서의 문화적 활동이 재원삭감과 복지서비스의 축소 등의 대안으로 전격 활용되거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조와 자립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복지의 성장과 병행하여 복지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포함하여 복지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복지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고령자의 사회활동에 입각한 공통된 생활양식이 노인문화로 구축될 수 있다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필자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일원으로 노인문화에 관한 개념정립에 입각하여 현장에서의 노인문화의 실천과 창조의 경험을 축적하여 후속연구로 이어갈 것임을 부기한다.

【参考文献】

정기룡(2021)「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변용에 관한 고찰」『일본근대학연구』제72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344-345

_____(2021)「일본 고령자의 생애생활설계에 관한 고찰」『일어일문학』제8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38-341

_____(2018)「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개호보험 도입배경을 중심으로-」『日本近代學硏究』제5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415-437

_____(2018)『노인문화창조-베이비붐세대의 한·일 비교분석』제이앤씨, pp.166-308

_____(2016)「여가활동으로서의 일본 고령자학습에 관한 고찰」『일어일문학』제6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 322-330
_____(2011)「일본의 고령자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일본연구』제4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7-28, p.9
_____(2010)「일본의 고령사회와 베이비붐세대에 관한 문화적 분석」『일본연구』제4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39-60
_____(2003)「고령사회 일본의 노인문화」『일어일문학연구』제43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99-301
赤瀬川原平(1988)「老人力講座-爆笑対談'男の分別学'拡大篇」『オール讀物』文藝春秋, p.216
一番ヶ瀬康子･桜井里二･河畠修･多田千尋･萩原清子(1997)「日本福祉文化学会は何をめざすのか一変革の時代の福祉を問う」『福祉文化研究』Vol.6, 日本福祉文化学会, pp.6-8
岩間文雄(2010)「福祉文化研究の今日的課題」『関西福祉大学社会福祉学部 研究紀要』No.13, 関西福祉大学社会福祉学部, pp.177-180
河畠修(2001)「高齢世代の動向と福祉文化」『高齢者と福祉文化』明石書店, pp.30-36
佐藤健二･吉見俊哉編(2007)『文化の社会学』有斐閣アルマ, pp.4-6
阪野貢(2006)「福祉文化と福祉教育」『社会福祉セミナー2006』, pp.1-3, pp.65-69
中村磐男･助川征雄･牛津信忠･池弘子･山口圭 編(2010)『標準社会福祉用語事典』秀和システム, p.197
増子勝義(2006)『福祉文化の創造』北樹出版, pp.9-16
永山誠(2004)「福祉文化を研究する視点」『福祉文化研究』Vol.13, pp.2-3
_____(2007)「地域社会と福祉文化」『福祉文化研究』Vol.16, pp.2-3
高田眞治(2007)「社会福祉の政策課題」『エンサイクロペディア社会福祉学』中央法規出版, pp.12-15
村磐男･助川征雄･牛津信忠･池弘子･山口圭(2010)『標準社会福祉用語事典』秀和システム, p.197
https://www8.cao.go.jp/kourei/ishiki/chousa/index.html (2021.12.6.)
https://www.mhlw.go.jp/index.html (2021.4.21.)
http://ja.wikipedia.org/wiki/社会保障 (2021.2.20.)
http://fukushibunka.hippy.jp/ (2021.11.2.)
http://fukushibunka.hippy.jp/index.html (2021.11.2.)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要旨〉

일본의 복지문화 및 노인문화에 관한 고찰

정기룡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매스미디어와 정부기관의 발표 나아가 기관명 등에서도 복지문화, 노인문화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러한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여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초고령사회의 생활양식 변화가 다음 세대에도 확실히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제도로서 고령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복지를 문화로서 승화시키는 데에 따르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요소가 사회전반에 남아 있는 형편이다.

그와 더불어 보편적인 생활문화의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와 복지문화의 적극적인 실천이 향후의 실천과제라고 하겠다. 나아가 생활환경의 개선과 건강한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가를 위한 노인문화의 필요성이 인식된다면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성장과 병행하여 복지문화의 형성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와 더불어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노인문화로 파악하여 그에 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A Study on the Welfare Culture and the Elderly Culture in Japan

Chung, Ki-R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oncept by considering the discussion on how to establish the concept of welfare culture, the elderly culture, etc.

This may be possible because there is a common perception among the people that the lifestyle changes of the super-aged society will surely continue into the next generation. Although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elderly is being improved as a social system including the Elderly Welfare Act, the abstract or ideological elements of sublimating elderly welfare as a culture remain in society as a whole.

In addition, environmental maintenance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al living culture and active practice of welfare culture are future tasks. Furthermore, the quality of life is expected to further improve if the necessity of the elderly culture is recogniz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healthy elderly in social activ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recognition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a welfare culture in parallel with the growth of social welfare. In addition, the phenomenon that is meaningfully accepted in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was identified as the elderly culture, and a prospect was attempted.